

운천호수·사직공원 일대 ‘광주형 특화상권’ 육성

광주일자리재단, 서·남구 등과 협약
상권 브랜딩·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특색 반영 골목경제 모델 구축
“지속가능 성장…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호수공원과 남구 사직공원 일대 골목상권이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광주형 특화상권’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17일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자리재단(광주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남구, 각 지역 상인회(운천호수공원상인회, 사직공원골목형상점가상인회)와 ‘2025년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말 평가를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아 예비 우수상권으로 선정된 ‘서구 운천호수공원상권’과 ‘남구 사직공원골목형상점가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일자리재단은 올해 이들 상권에 △골목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 △상권 브랜딩·디자인 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실행 과제를 지원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 상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해 ‘광주형 골목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현성 광주일자리재단 대표는 “지난해 동구의 성공적인 변화가 올해 고도화 사업으로 이어진 것처럼, 서구와 남구 역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멈춰있던 골목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재단이 가장 먼저 움직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자리재단은 이번 서·남구 예비

상권 협약에 앞서 지난 12일, ‘광주대표 우수상권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동구·동명공동체상생협의체와도 협약을 마친 바 있다. 기존 우수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도화’ 단계와 새로운 잠재 상권을 발굴하는 ‘예비’ 단계를 연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본격 가동되면서 광주 전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컬러드벨’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층 버버리 앞 매장에서 천연 소가죽 가방 브랜드인 ‘컬러드벨’ 팝업행사를 22일까지 진행한다. 여름을 맞아 코디하기 좋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토트백, 보스톤백, 리틀백 등의 가방 뿐만 아니라 백스카프, 키링 등 다양한 소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팝업기간 중 가방 구매시 백 스카프 커스텀 무료서비스 및 금액대별 구매 감사품 증정 등의 이벤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프랑스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글로벌 홍보

파리 코리아 엑스포서 이벤트·강연
파리한식협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코리아 엑스포는 파리 포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렸다. 총 144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엑스포에 참가해 전남

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도미식의 고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소통망(SNS) 구독 이벤트와 남도미식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도미식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파리한식협회(회장 이종선)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박람회의 유럽 현지 홍보, 청년 미식 셰프 인재 양성, 전남 식재료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소개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남도미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오는 30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40%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유럽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타이완관광청 등 두 나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가해 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상의, 미래내일일경험 합동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안내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3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돼 1부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3차 합동설명회 참여기관은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주권 일자리 지원사업),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취업연계지원사업)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건설경기와 관광산업 침체가 지속돼 지역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면서 “이번 설

명회로 제주권역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청년들의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래내일일경험 사업홍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 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양질의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추진 중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회원
“세계적 디자이너 성장 적극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KDM+)’ 회원들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KDM+ 회원인 강우준(조선대 디자인공학과 4년)씨의 육모렌치 디자인 등 작품 2건이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 주관으로 1955년부터 시작됐으며,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 공모전에는 66개국에서 1만 1000여건이 출품됐다.

강씨의 ‘마트료시카 렌치(Matryoshka Wrench)’는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에서 영감을 얻은 육모렌치 디자인이다. 다양한 사이즈의 렌치를 하나의 틀 안에 겹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해 창의성을 인정 받았다.

또 다른 본상 수상작은 KDM+ 4기 회원인 임호현(27·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강은비(전북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4년)·임민선(제주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4년)씨가 공동 개발한 책상 인테리어 제품 ‘포레스트(For Rest)’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책상 위에서 감각적인 휴식과 창의적 영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KDM+ 회원들의 디자인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며 “지역 기반 인재들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경총, 20일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중동 전문가 서강대 박현도 교수를 초청해 ‘트럼프 2.0과 중동정세’를 주제로 제1689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교수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연구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강사, 한국종교학회 유대교 이슬람 분과 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동과 에너지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쇠퇴 △트럼프와 중동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란 경제 △이란 핵 △이란 핵과 미국 △한-시리아 수교 등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아트 TV 홍보대사 ‘BTS RM’ 선정

삼성전자가 17일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RM을 삼성 아트 TV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삼성전자는 아트 스토리에 미술작품에

대한 RM의 해설을 담은 ‘RM 작품 코멘트’를 공개한다. RM은 엄선된 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공유하며 삼성 아트 TV 사용자들이 작품을 더 다채롭게 감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RM은 삼성 아트 TV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현지 시간) 스위스 메세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 인 바젤(Art Basel in Basel)’에 참석해, 특별 토크 세션을 18일(현지시간) 진행한다.

아트 바젤에서 진행될 RM의 활동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공개된다.

RM과 삼성 아트 TV의 이번 협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기자

